

잠실만 가면 작아지는 호랑이, 마지막 자존심은 지킨다



올 6월 두산전 싹쓸이 패 이어 8월·10월도 연패
잠실은 KIA의 또 다른 홈구장...팬 실망
내일부터 LG전...열세 만회·순위 싸움 변수 '주목'

‘호랑이 군단’이 잠실 링크스를 털어낼 수 있을까? 주중 장원에서 원정경기를 치른 KIA 타이거즈는 16일부터 잠실로 자리를 옮겨 LG 트윈스를 상대한다. 5위 싸움에서는 멀어졌지만 이뤄야 할 목표들은 있다. ‘열세 만회’를 통한 자존심 회복이 KIA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목표다. KIA는 올 시즌 잠실을 안방으로 쓰는 LG, 그리

고 두산 베어스에 약한 모습이다. 두산전 3승 12패로 가장 성적이 좋지 않고 그 다음으로 열세를 보이는 팀이 LG다. KIA는 LG에도 4승 8패로 뒤지는 등 두 팀과의 승부에서 ‘-12’를 기록했다. 두 팀의 승부에서 KIA의 5강 싸움이 꼬여버린 형국이 됐다. 당연히 잠실 전적도 좋지 못하다.

KIA는 시즌 첫 잠실 원정이었던 6월 5-6-7일 두산과의 3연전에서 싹쓸이 3연패를 당했다. 이후 8월 11일 시즌 두 번째 잠실 원정이 펼쳐졌다. LG를 상대로 했던 시리즈 시작은 좋았다. KIA는 8-4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시즌부터 이어졌던 잠실 경기 11연패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남은 두 경기는 모두 패배였다. 12일 브룩스를 앞세우고도 0-8 영봉패를 당했고, 13일에도 2-4의 패배가 기록됐다. 8월 18일 2연전의 시작점도 잠실이였다. 1주일 만에 다시 만난 LG와의 대결에서 KIA는 또 2패를 남겼다. 연장 10회 LG 김현수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았

고, 이민우가 3.1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다. 8월 25일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도 상대의 사사구 행진으로 8회 3점을 뺏으면서 8-8 동점을 이뤘지만, 결과는 8-10패. 어느새 잠실 5연패가 쌓였다. KIA는 다음날 9회 전상현의 2실점으로 진땀을 흘렸지만 7-5 승리를 거두며 잠실에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신고했다. 하지만 10월 2일부터 진행된 두산과의 3연전에서는 모두 패배했다. 예상치 못했던 키움전 ‘깜짝 스왑’의 분위기를 잊지 못한 채 3연패를 당했고, 이때 사실상 KIA의 5강 싸움이 끝났다. 이와함께 올 시즌 KIA의 잠실 전적은 2승 11패

가 됐다. 잠실은 KIA팬들에게는 또 다른 홈구장이나 다름 없는 곳이다. 3루 관중석을 가득 채우며 가장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여주는 팬들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IA의 잠실 악몽은 계속되고 있다. 13일부터 관중석이 재개방되면서 KIA는 다시 잠실팬들을 만나게 된다. KIA 팬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재회지만 그라운드 분위기는 많이 식었다.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기회는 남아있다. KIA가 잠실, LG 열세를 만회하고 ‘고춧가루 부대’로 팬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터커, KIA 외인 첫 ‘30홈런-100타점’

1회초 홈런...100타점 고지 선점

터커가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 사상 첫 ‘30홈런-100타점’ 기록을 작성했다.

터커는 15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회초 1사에서 홈런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29홈런, 99타점을 기록했던 터커는 첫 타석에서 담장을 넘기며 ‘30홈런-100타점’에 부족했던 홈런과 타점을 동시에 채웠다.

지난 9월 20일 이후 잠잠했던 터커의 방망이가 마침내 움직였다.

최원준이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뒤 김선빈이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1사 1루에서 타석에서 선 터커는 2볼 2스트라이크에서 박정수의 5구째 126km 체인지업을 잡아당겨서 우월 투런포를 장식했다.

타이거즈 외국인 타자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 순간이었다.

타이거즈 구단 역사상 시즌 30홈런을 친 외국인 타자는 해태 시절이던 1999년 40홈런을 기록한 트레이시 샌더스가 유일하다.

그러나 당시 샌더스는 100타점은 기록하지 못하고, 94타점에서 멈췄다.

터커는 지난 시즌 해즐베이커의 대체 선수로 영입돼 5월 17일 KBO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해 95경기에 나와 0.311의 타율과 함께 50타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은 냈지만, 장타력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올 시즌 ‘파워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터커는 KT 로하스(45개), LG 라모스(38개), NC 나성범(31개), 키움 김하성·SK 최정(30개)에 이어 올 시즌 KBO리그에서 6번째로 30홈런을 넘겼다.

KIA에서 가장 먼저 30홈런을 채운 터커는 이날 경기 전 98타점을 기록한 최형우에 앞서 100타점 고지에도 선착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터커 “내가 KIA 새 역사” 15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NC 다이노스 경기. 1회초 1사 1루에서 KIA 터커가 선제 우월 2점 홈런을 치고 선형주자 김선빈의 환영을 받으며 홈 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4번타자 출전 최지만, 멀티 출루

탬파베이, AL 챔피언십 4차전 3-4 패...시리즈 3승 1패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이 중요한 순간에 깊은 내야 안타, 볼넷으로 출루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팀은 패해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 짓지 못했다.

탬파베이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 4차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대결에서 3-4로 패했다.

1~3차전을 모두 휩쓸며 ‘스윕’을 노렸던 탬파베이는 시리즈 첫 패배를 당했다.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최지만은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그는 0-1로 뒤진 2회초 첫 타석에서 상대 팀 선발 투수 잭 그레이넬에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2-2로 맞선 4회초엔 루킹 삼진으로 아웃되며 아쉬

움을 삼켰다. 안타는 2-4로 뒤진 6회에 나왔다. 그는 2사 1·2루에서 유격수 쪽 깊은 타구를 만든 뒤 1루로 손살같이 뛰어가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최지만은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도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그는 선두 타자로 나서 천금 같은 볼넷을 얻었다. 안타 하나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 그러나 후속 타자인 쓰쓰고 요시토모가 우익수 뜬 공으로 물러나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두 팀은 16일 같은 장소에서 시리즈 5차전을 치른다. 이 경기에서 탬파베이가 이기면 최지만은 한국 야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는다. /연합뉴스

80개 고교야구 ‘가을 잔치’

다음달 2일까지 봉황대기...광주일고, 오늘 오전 경기야탑고와 1R

고교야구 선수들의 ‘가을 잔치’가 시작된다. 제48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16일 서울 목동·신월 구장에서 개막해 11월 2일까지 18일 간의 열전을 이어간다.

봉황대기는 지역 예선 없이 전 고교팀이 참가해 우승을 다투는 무대로 올해는 80개 팀이 참가한다.

16일 오전 9시 30분 경기항공고와 서울정원고가 목동구장에서 개막전을 갖고 우승 경쟁의 시작을 알린다.

경기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주요 경기는 SPOTV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일고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광주일고는 16일 오전 9시 30분 경기야탑고와 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는 순천효천고가 부산개성고와 승리를 다툰다.

17일 오후 12시 30분에는 KIA 타이거즈 연고팀이 정음인상고와 감해고와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의 승자는 22일 오전 9시 30분 ‘신생팀’ 나주광남고와 대결한다.

18일 오후 12시 30분에는 화순고가 휘문고를 상대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광주동성고는 18일 오후 3시 30분 마산용마고를 상대로 ‘절육전’을 준비하고 있다. 청룡기 준우승에 빛나는 동성고는 지난 8월 대동령배 첫 경기에서는 용마고에 3-11 대패를 기록하며 일찍 대회를 마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진흥고는 가장 늦게 봉황대기를 시작한다. 진흥고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디자인고와 힘겨루기를 한다.

이번 대회는 내년 시즌을 점쳐보는 ‘미리 보는 2021’이다.

2학년들 위주로 대회가 치러지면서 내년 시즌 각 팀을 대표해 뛸 선수들의 면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차 후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KBO리그는 2022년부터 전면드래프트를 통해 신인선수들을 선발한다.

2021시즌은 KBO리그 각 구단이 지역 연고팀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1차 지명권을 행사하는 시즌이 되는 셈이다.

KIA의 눈길을 끌기 위해 동성고 투수 신현민과 내야수 김도영이 ‘집안싸움’을 벌인다.

내년 시즌 진흥고를 이끌 강속구파 문동주도 눈에 띄는 자원이다.

효천고의 강견 포수 하인서도 이번 봉황대기를 통해 어필 무대를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